

제 154 호

라테라노 대 성전 축성

연중 제 32주일

1975. 11. 9.

순정이

발행인	김종택
인쇄인	김석규
주간	조성호
편집	한상갑

편집실 : 전주시 서노송동 601번지 가톨릭센터 내 (전화 33498)

□ 장 문 □



영원한 안식을 빌자!

한봉섭 (시몬)

소슬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을 주시하며, 인생의 허무를 명상케 하는 11월은 교회력으로 바시 한해를 마치는 달이며, 결실의 달이다.

제철의 감각으로도 어울리는 11월을 교회에서는, 우리에게 앞서 이 세상을 떠난 분들을 위하여 영원한 안식을 빌고 우리들 인간의 운명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는 위령의 달로 지내고 있음은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

당신은 당신에게 주어진 삶의 출처와 귀착지를 아는가? 생명이 시작되는 순간,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또 언제인가는 다시 내 생명(영혼)의 본 고향인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신앙인이지만, 인간의 종말을 생각한다는 것은 믿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말할 수 없이 괴로운 일이다. 그러나 모든 인간과 온갖 생물에게 예외없이 그 비참한 종말이 불가피하게 주어진다 는 사실을 우리는 현실적으로 보고 있다.

인간은 영원히 살기를 희망한다. 사실 이러한 욕망이 가능하다는 것도 알고 있다. 이것은 바로 죽음을 영원한 생명으로 승화시킨 그리스도를 믿기에 우리도 그분과 더불어 현재에서 죽는다 하더라도 다시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죽음은 인생의 종말이 아니요, 새롭고 영원한 생명의 시작임을 믿는 신앙인이라고 할 때, 지금 이렇게 견제하고 있는 나는 죽음의 문제를 고통과 비애의 사실로서, 아니 믿어지지 않는 사건으로만 생각해야 하겠는가? 죽음의 관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참 행복으로 초대되고 새로운 삶으로 옮겨간다는 사실임을 명심할 때 우리는 오히려 그 복된 죽음을 애타게 그리워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죽은 이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빌어야 하는가? 비록 죽음을 통해 영원한 삶으로 초대되고 있는 인간일지라도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받을 수도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마태 25, 46)을 들을 때, 생존해 있는 우리가 죽은 이들의 안식을 빌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비록 그가 온종종 죽음을 맞은 경우라 하더라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의 잘못이 있을 것임도 확실하겠기에 말이다.

과연 우리 가운데 현재의 나로서 지금 당장 죽음을 맞는다면 천국에의 초대에 합당한 준비가 다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단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도 한 번의 잘못없이 지낼 수 있는 날이 과연 있을까? 우리는 항상 잘못을 저지르고 그것들을 뉘우치고 용서를 빌곤 하지만 이러한 참회 역시 실통치 못함도 잘 알고 있다.

그렇기에 구약과 신약의 제사와 교회의 기도문 안에서 죽은 이들을 위한 기도가 계속된다.

천국을 얻기 위하여 싸우는 지상교회와 그 일원인 우리는 영원한 행복으로 초대되기 위하여 정화되고 있는 영혼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빌자!

<전동 천주교 보좌신부>

* 이 주일의 미사 *

가톨릭기도서 p 522

(1) 개회식

□입당송 내 거룩한 도성, 새 예수살렘을 보았도다. 신랑을 위해 곱게 단장한 신부와의 같이 하느님께로부터 내려오더라.

(2) 말씀의 전례

[제 1독서 (창세기 28 : 11-18. 경향잡지 p 82)

하느님의 집과 천국의 문

□증계송 ◎만군의 주님이여, 계시는 곳 그 얼마나 사랑호우시고.

그 안이 그리워/내 영혼 애태우다 지치나이다/이 마음 이 살이/생명이신 하느님앞에 뛰노나이다. ◎

□제 2독서 (코리토전서 3 : 9-13, 16-17 성서 p 375)

너희는 하느님의 성전이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이 자리를 내가 택하여 거룩하게 하였으니, 내 이름이 여기 영원히 있으리라. 알렐루야.

□복음(마태오 5 : 23-24 성서 p 9)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재물을 바쳐라.

□신자들의 기도

1. 정의와 평화의 하느님! 당신은 항상 인류역사 안에서 고통과 시련을 통하여 당신의 정의와 평화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의 고통과 시련의 쓴맛을 알게 하시옵고 이 세상에 정의와 평화를 심는데 우리의 수고를 아끼지 않도록 용기와 힘을 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2.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느님!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고 억눌림을 받는 형제들을 지켜주소고 그들이 믿음 안에서 위로를 얻을 수 있게 해주소서◎

3.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하느님!

당신의 뜻을 펴다 이 세상을 살다가 우리보다 먼저 간 죽은 모든이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3) 성찬의 전례 □불헌 □성찬식

□영성체송 너희는 신령한 집을 짓는데 산물이 되고 거룩한 사제되리라.

순정이 산책



죽은이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연령들에게 기쁨을

최 재 선 주교

해마다 11월이 오면 비록 어둡침침한 영오의 영혼들이지만 생기와 희망에 넘치는 기쁨의 영혼들로 일변합니다. 연령을 위한 실심은 우리 가톨릭의 유효한 실심의 하나요 세상을 떠난 교형자매들의 불우한 처지를 도와드리는 실천 애덕이며, 살아있는 우리들의 당연한 책임인 동시에 우리를 위한 실심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연령을 위한 실심은 하느님을 찬미할 영혼들을 하나나라로 들어 가게 하는 일이므로 곧 하느님께 영광이며, 도움을 받는 그들도 우리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연령을 위한 기도 와 선행은 각자 자신들의 죽음과 연옥을 묵상하는 중요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전도서 7장에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이 초상집에 있고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이 잔치집에 있다고 했지만 현세의 사람들이란 잔치집에 가까운 것만은 사실이겠지요? 오 꼭백과가 풍작이라하여 "풍년이 왔네, 잘 살아. 보세"하고 노래하지만 "죽음이 오네, 잘 죽어보세"하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 성경 말씀의 뜻과는 거리가 먼 심정이라 아 니할 수 없습니다.

현세물질을 미세 영원에까지 가지고 가는 방법은 애써 모은 내 재산을 천주의 영광과 연령들을 위해 선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의 재물을 영원한 내 재산으로 갖 게되는 멋진 방법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한다면 우리의 공 도 반드시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죽음을 향해 행진하는 것이니 이것은 대자연의 법 칩이며 하느님의 계획입니다. 미사감사송에 죽음은 죽음이 아니요 영원한 삶에로의 전진이라 했으니 우리는 장 래의 죽음과 연옥이 내 차지임을 생각하고 알뜰히 모은 재산과 살뜰히 키운 육신, 열심히 가꾼 내 영혼을 하나 도 남김없이 모두 영원한 삶으로 옮겨가자는 뜻에서, 연 령 성월을 거룩히 맞이하여 선행을 쌓는 것이 이 연령성 월에 해야 할 일임을 깨달을 때, 우리 교형 자매들은 얼 마나 기뻐할 것이며 또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얼마나 효 과 있는 신심이겠습니까?

주여 세상을 떠난 형제자매들에게 영원한 평화의 안식 을 주옵소서!

(한국 외방 주교회 총재 주교)

(경향잡지 11월호 권두언 참조)

속죄(贖罪)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평화

회장님, 오늘도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 가 많으신지요. 죄녀(罪女)는 형제 자매님들의 기구로 오늘도 행복합니다.

회장님, 지난번 약속한 금액 30,000원을 부쳐 드린 것 과 지금 드린 70,000원을 합쳐서 꼭 성상(聖像)을 하나 해 주세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신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성상을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한푼 두푼 절약해서 모은 돈입니다. 오직 속죄하는 뜻 을 두고 바치오니, 더욱 뜻있게 하려고 하오니 죄녀의 청을 들어 주세요.

오늘은 제성절례(諸聖, 모든 성인의 날)입니다. 삼구 (三九, 세속·마귀·육신) 전쟁에서 승리하신 성인성녀 들을 공경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도 악 과 싸워서 승리해 가지고 영원히 하느님을 찬미해야지요 꼭 비밀로 해주세요.

회장님과 거기 계신 형제 자매님들에게 많은 축복을 기원하면서 이만 줄입니다.

1975. 11. 1 罪女 올림

감사합니다.

익산 농장 공소 건립에 도움을 주신 분들

서학동 익명 교우	금반치	복자 익명교우	10만원
중앙 박찬훈	10만원	신태인 박순이	5천원
삼례본당 교우들	27,600원	(명단, 추후 발표)	
삼례 신용조합임원	2,000원	익산농장 강대철	1,000원
익산농장 김길동	3,000원	익산농장 최한용	500원
신촌농장 이돈창	2,000원		
김제 신압공소 교우들	10,000원	임종옥	5,000원
해성고 이희창	5,000원		
가톨릭 나사업가 연합회 회장 엠마	50만원		
가톨릭 나음성자 자조협회	10만원		
이리 성모의원(대표 송수녀)	25만원		
고창 동혜원 켈마 수녀	1만원		
함열 상지원 원생들	10,000원		
" 청년회원들	3,000원		
충북 새마을 농원	2,000원		
후산 상지원 김철수	1,000원		
계 금반지 1점	현금 1,137,100원		

삼성 T.V 대리점

삼성전주센터

T.V, 냉장고, 전기용품 일괄

박영옥(누시아)

전주극장입구 전화 ㉠ 5898

서울 인류기술자 초빙 개업

A 원 양 복 점

교우 여러분에게는 인하 봉사

정읍 군청에서 성림극장 쪽으로

전화 998

황재평 (베드루)

◎교형 여러분의 집◎

현대 사진관

김낙준(요한)

오거리 한진 옆

전화 ㉠ 6289

□성년 순례 보고 □

성지 순례를 마치고

배 데 레 사



화해의 성년을 맞아 성년 중앙위원회 초청을 받아 우리 전주교구를 대표하여 성지순례단의 일원으로 성지순례에 참가하게 되었음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이를 주신 해 주신 김주교님의 각별하신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순례단은 14개 교구에서 온 46명의 교구 대표들과 54명의 한국 주교회의 직수단체인 가톨릭 여성 연합회 순례자들을 합하여 103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우리 일행은 지난 10월 7일 역사적인 성지 순례길에 올라 파리를 경유 그 첫번째 순례지는 "루르드"로써 그곳은 지금으로부터 117년전 1858년에 성모님께서 물방아간을 경영하는 가난한 집의 딸 14세 소녀 벨라멧다에게 18회 걸쳐 발현 하였던 곳으로 베레네 산기슭의 마사비엘의 동굴 위에 성모님의 발현하심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루르드 대성전이며 벨라멧다의 집 그리고 영적의 샘과 불치의 환자들이 버리고 간 들것과 지팡이 등이 시선을 모았습니다.

다음은 영원한 도시 로마를 순례하는동안 교황님을 만나 뵈옵는 환희와 기쁨 그리고 교황께서 집전하는 미사에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수많은 순례자들은 전세계 교회간에 서로를 축복하는 형제적 사랑과 일치로 실현시키는 보다 생생한 일치를 보여주었으며 또한 공동체 안에서 자기들 각자의 소명을 깨닫고 더욱 열열히 살기로 마음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 베두루 대성전, 라페란 대성전, 사도 바오로 대성전, 성모 칠지전 대성전 등 여러 대성당과 까따콤바의 많은 유적들과 바티칸 박물관의 많은 예술품 등을 둘러 보았다.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을 더듬어 에루살렘에 도착 최후 만찬을 행하셨던 밤이며 변민에 쌓여 늙도록 기구하시던 제세마니 동산 그리고 십자가의 길, 성혈로 얼룩진 골고타의 언덕등을 참회의 눈물로 얼굴을 적시며 예수님의 가신 발자국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 험, 나자렛, 계네사렛 호수 등 유서 깊은 성지를 참배하고 3주간의 성지순례의 여정을 모두 마치고 지난 27일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떠날때에도 준비관계로 어른들께 인사도 제대로 못 올리고 떠났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하오며 우선 지면을 통하여 귀국인사를 올립니다.

(근산 월명동 본당)

요십미 (120) 김병오



□신간 안내 □

구상 문학선

구상 저 2,000원

성 바오로 서원 (T⑦398)

◎교우들의 건강 관리 센터◎

영진 약국

—조제약 전문—

김 을 태 (베드로)

●육교열 중앙 시장동
(전화 ⑤ 4577)

여성 여러분에게 멋을 팝니다

세느 의 상 실

최 춘 자 (르사리아)

전주시 중앙동, 뉴 명보계과 앞
전화 ⑤ 6219

❖ 금성·삼성 제품 취급 ❖

綜合電子

김 종 환 (원선시오)

●팔달로변 (舊 광주직행앞)
전화 ⑤ 3332

※ 신자들의 건강 센터 ※

※ 신자들의 집 ※

성심당 한약방

대 지 사 진 관 (2층)

이 상 범 (필노리아노)

육교열 구 북부배차장 옆
전화 ⑤ 6544

※교우들의 집단장은!※

동양 페인트

현재 가격에서 10% 할인판매
(단 교우에 한함)

전주 뇌병원 옆
전화 ⑤ 2765·5986

* 교형 여러분의 집 *

스타 사진관

장 남 수 (바오로)

● 오거리동, 동아여관 앞
전화 ⑤ 6094

제 4 지구 각 본당 소식

☆11월은 위령성월입니다 먼저 가신 부모, 형제를 위하여 미사를 봉헌합시다

1. 오지리 부인회 장학생 선발

대상자: ①농과, 공과, 실업고등 전문학교 재학증명서 2통 ②가정 환경조사서 2통 ③사진 3×7cm 2매
지금까지 보조학생은 75년도로 마감하며 자세한 것은 주임 신부님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2. 추계 주교회의가 서울에서 10월10일(월)~15(토) 까지 열리게 됩니다.

추계 주교회의에 주님의 성충이 함께 하시길 모두 기구드립니다.

3. 전주교구 중, 고등학교 학생 임원회의 75년11월 9일 오후 2시 전동성당 사제관에서 학생 임원들의 빠짐없는 참석 바람

4. 이삭회 회원을 모집합니다-

성경 연구와 자유 토론 및 교양함양에 많은 젊은이들의 참여 바랍니다.

일시: 매주 목요일 하오 7시30분~9시까지



(중앙)

전화 ②2651 ③3874

주임 신부 이대권
보좌 신부 김동용
사도 회장 김성용

1. 이대권 신부님의 은경축일에 물심양면으로 대성황을 이루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꾸리아 율례회: 오늘 오후 2시
3. 성모회 율례회: 다음주
4. 미납된 교무금을 완납하여 주시기 바람
5. 마당 공사비 회사금(금주)
6. 배령 수도사 권이천 4,500원 감사합니다.
7. 합동 위령미사: 오늘 공식 미사에

(노송동)

전화 ②7032

주임 신부 황승철
사도 회장 조해형

1. 신용조합 율례회: 오늘 10시 미사후
2. 애령회 간부 율례회: 다음주일 특별헌금 있음
3. 학생회 임원회: 11월 10일 저녁 8시
4. 11월은 위령성월: 본당 애령회에서 연중 행사로서 오늘 10시 미사에 미사드리오니 미사중 기도 바람
5. 새 성당 의자 헌금에 감사 드립니다.
주계: 38,100원 누계 598,830원
6. 성당 신축 헌금에 감사 드립니다.
박성규 10,000원 누계 4,181,627원
7. 신축 성미: 주계 1말 6되 누계 233말 6되
미사시간 변경(화요일부터)
(주일) 아침 6시30분. 공식미사: 10시 저녁 7시
(평일) 저녁 7시. 금요일 10시. 토요일 오후 5시
8. 고 신부님 어머니 1주년 기일미사
많은 교우들의 협조 바람

(덕진)

전화 ③ 2182

주임 신부 박종근
사도 회장 김홍환

1. 수녀님 지도 예비자 교리 실시: 11월16일 부터 주일 공식 미사후 부터 본당 사무실에서
2. 유아 세례: 11월10일 월요일 10시
3. 신용조합 율례회: 오늘 공식 미사후
4. 76년 신년도 봉헌금 미신입자는 금주내로 신입서를 각 반장님 또는 본당 사무실에 보내주시기 바람

(복자)

전화 ② 5238

주임 신부 김종길
사도 회장 조성호

1. 반회합 제5반 11월13일(목) 반장 봉영숙 반장맥에서 제6반 11월14일(금) 반장 유복성 반장맥에서 <성경재 반수첩 지참>
2. 성가 연습: 매주 토요일 저녁 7시30분
3. 주일금 배가 운동에 적극 협력합시다. -제경부-

(서학동)

전화 ② 2276

주임 신부 김영일
사도 회장 박장훈

1. 봉사위원회: 오늘 저녁 미사후
2. 상관 성당 사도회 애령회: 오늘
3. 10시 미사후 예비자 교리 없습니다.
4. 사도회 율례회: 다음주 각급 위원장들은 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보고를 제출 하시길 바랍니다.
5. 지난주일 애령회비 4,815원
6. 오늘 주일이 전진 예정일인데 전진자수가 너무나 적기 때문에 연기합니다.
7. 75년도 교무금을 완납하여 어려운 본당살림을 도읍시다.

(전동)

전화 ② 3222

주임 신부 김환철
보좌 신부 한성모
사도 회장 양윤모

1. 성지 순례단 369명 성대히 순례 마칩
2. 자모회, 성가정회, 장우회 대의원회 율례회
3. 유아세례: 오늘 오후 2시
4. 신학생 모집: 주임신부에게 문의 바람
5. 신용협동조합 율례회: 14일 오후 7시 40분 지정환 신부님 카나다 신용조합 견학보고 <참석자에 선물 있음>
6. 75년 신년도 봉헌금 미신입자는 금주내로 신입서를 사무실에
7. 중 고 전체 율례회: 9일 11시 성당에서

* 각 본당의 금주간 소식과 지난주일 봉헌금 *

지구	본당	소식	봉헌금	지구	본당	소식	봉헌금
제1지구	고김부수신태인	추계 신자 가정방문 실시	4,015원	제3지구	주현동 창인동 황동	사도회 부인회 율례회	38,175원
		사도회 입시총회	20,300원			성심회 입시총회	54,000원
		성모회 율례회	5,345원			성당 논전자경작 입찰공고	2,140원
제2지구	대둔울명동합	11월 사무 협의회	12,670원	제4지구	중노송동서학동전전	신부님 은경축일 협조에 감사 드립니다	58,542원
		L.M 연수회	4,170원			애령회 간부 율례회	23,951원
		신용조합 율례회	35,260원			유아세례	14,936원
제3지구	고금여	주일학교에 보냅니다	22,680원	제5·6지구	무장전남순임	주일금 배가 운동	18,720원
		첫 고백 영성체자 교리	12,895원			상관성당 사도회와 애령회	12,850원
		청년회 입시총회	16,515원			자모회, 성가정회, 장우회, 대의원회	52,176원
제3지구	고금여	본당 화단정리 및 월동준비	5,105원	제5·6지구	무장전남순임	교무금 자진 신입합시다	3,620원
		상위임원님들의 전도 축복을 빕니다	11,565원			청년회 율례회	1,000원
		위령성월을 뜻있게 보냅니다	11,565원			예비자 교리	12,635원
						레지오 마리아 꾸리아회	1,000원
						중학생 모임	4,105원